

# 질병을 치료 ‘함’과 ‘받음’ 사이

— 덩링(丁玲)의 〈병원에서(在醫院中)〉를 중심으로 —

신 민 준\*

〈目 次〉

- |                      |                        |
|----------------------|------------------------|
| I. 들어가며              | IV. 치료 ‘함’에서 치료 ‘받음’으로 |
| II. 의사 루핑            | V. 나오며                 |
| III. 경계적 공간으로서의 산부인과 |                        |

## I. 들어가며

덩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전향’이다. 그만큼 덩링의 이념적, 문학적, 신분적 전향은 덩링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방향으로 전향했다는 그 방향성과 성격에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덩링의 전향을 일방향적인 전향으로 설명하며 오히려 덩링이란 인물을 단층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논하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이로 인해서 덩링이 보여준 다층적, 다원적인 모습은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고, 이 당시의 덩링은 이념화로 나아가는 방향성의 선 위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단계에 있었다고 평가받는다. 따라서 적지 않은 연구들에서 이 시기를 전향 과정 속 ‘고난’으로

\* 고려대학교 중일어문학과 박사수료,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평가하며, 더 나아가 이 시기에 덩링이 보여준 모습들을 좌익 이념의 극단에서 있는 형태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sup>1)</sup>

그렇기에 이 시기의 덩링이 지녔던 다원적, 다층적인 측면을 새롭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1937년 옌안에 당도한 이후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정풍운동이 본격적으로 그 기세를 떨치던 시기의 덩링은 어쩌면 특정 귀속처로 예측되지 않고, 따라서 특별한 제약 없이 스스로를 가장 과감하게 표현해낸 시기라고 할 수 있었다. 순수한 문학인에서 좌익 활동의 중심지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덩링이었지만, 그 속에서 옌안의 주류 세력들과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덩링은 온전한 문학인도 좌익 운동가도 아닌, 하지만 다양한 영역의 교차점에서 있는 다층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sup>2)</sup> 이로서 덩링은 다양한 극점들이 이루는 다층적인 경계선 위에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감각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덩링을 평가한 허구이메이(贺桂梅)의 문장을 보도록 하자.

“덩링의 예술적 개성과 문체 풍격은 현대적 색채를 선명하게 표현해냈으며, 이와 함께 자발적인 혁명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그녀로 하여금 강렬한 현대 지식인의 비판의식과 정서적 논리를 드러내 보이게 하였다. 동시에 그녀의 여성 신분과 여성 의식으로 인하여, 그녀와 옌안의 주류 사이의 모순 속에는 내부적으로 명확한 젠더 관념의 충돌을 포함하게 되었다.”<sup>3)</sup>

- 1) 李杨, <“右”与“左”的辩证: 再谈打开“延安文艺”的正确方式>,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第8期, 2017, 1-18쪽 참조.
- 2) 물론 덩링의 남편이었던 후예핀(胡也频)은 열정적으로 좌익운동에 몸을 담았으며, 덩링은 이에 의구심을 지니면서도 후예핀의 활동을 함께 했기에 옌안 이전부터 어느 정도 사회주의의 테두리에 걸쳐있었다. 그러나 덩링이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가로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 즉 옌안 시기와 겹쳐있다고 할 수 있다. 김미정, <정령(丁玲)문학의 진폭(1) -정령(丁玲)의 좌익으로의 전향을 전후하여->, 《중국어문학》제51집, 2008 참조.
- 3) 丁玲的艺术个性和文体风格表现出了鲜明的现代色彩, 并具有自发的革命热情, 这使她表现出强烈的现代知识分子的批判意识和情绪逻辑; 同时, 因为她的女性身份和女性意识, 她与延安主流之间的抵牾又包含了明确的性别观念的冲突在内。

상기한 허구이메이의 평가로부터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먼저 당시 덩링의 다중적이고 다층적인 정체성이 현실 속에서 어찌 구현 되었으며, 그것을 어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시 하고 있다. 당시 덩링의 사유는 단순히 특정 이념에 국한된 것이 아닌, ‘현대적’인 ‘예술적 개성’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근간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모습은 ‘현대 지식인’으로서의 ‘비판 정신’이라는 형태로 당시 옌안의 주류 세력들과 맞서는, 어떠한 ‘저항’의 힘, ‘혁명성’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덩링 을 정리해보자면 다양한 내재적 신분이 자신의 정체성 안에 혼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었고, 이것이 곧 더욱 강렬한 혁명적 해방의 목소리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근대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으로서, 이념적 혁명가로서, 그리고 현대적 문학가로서, 이 시기의 덩링은 어느 것 하나를 쉽게 저버리지 않고 모두를 담보한 채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했기에 다층적인 내적 신분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가능했다. 분명 덩링은 좌전향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 담론에 편입되기 위해서 옌안으로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다양한 신분적 정체성의 혼재, 그것이 만들어 낸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이념에 의해 가려지지 않고 전면적으로 드러내 보이게 하였고, 경직된 주류 세력에 일종의 ‘저항’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장주리(张祖立)는 이 시기의 덩링이 ‘소피’ 시기의 전향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평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때의 덩링은 어찌면 ‘소피’ 시기보다도 관념으로부터 더욱 해방적이고, 1940년대 말의 시기보다도 더욱 혁명적이었다고 평가해볼

贺桂梅, 〈知识分子、女性与革命 --- 从丁玲个案看延安另类实践中的身份政治〉, 《当代作家评论》 第3期, 2004, 114쪽. 해당 논문은 국내에 허페이메이, 성근제, 〈지식인·여성·혁명 - 덩링(丁玲)의 사례를 통해 본 옌안의 대안적 실천과 신분정치〉, 《황해문화》제40호, 2003로 번역되어 있다.

4) 张祖立, 〈丁玲“向左转”过程中的一次主体“困惑”〉, 《东北师大学报》 第3期, 2007, 141쪽.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덩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바로 <병원에서>이다.

작품 <병원에서>는 공간과 인물 형상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위계질서를 통해서 사회 담론 속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상기한 내용을 더욱 부각시켜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보았던 덩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의 혼재, 그것이 형성하고 있는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인물 형상과 공간을 통한 감각적인 표현으로 나타냄으로써 그것이 수반하는 여러 함의들을 연속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우선 공간적인 측면에서 덩링은 산부인과라고 하는 공간을 등장시킨다. 이 공간은 어찌 해석해볼 수 있는가? 작품 속 산부인과는 주인공 루핑(陆萍)의 의사, 여성, 혁명가라고 하는 각기 다른 신분들이 교차하게 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병원 속 담론이 형성하는 역학 관계 내에서 권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산부인과라고 하는 여성성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공간에서 담론의 지배를 받는 여성으로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개혁하고자 열망하는 혁명가로서 루핑은 사명감을 지닌 채로 병원에 첫발을 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핑이란 인물은 혁명가로서 꿈꾸던 이상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겪게 된다.

상기한 묘사는 당시 덩링의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는 어쩌면 루핑이라는, 더 나아가 작가 덩링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혁명가가 아니며, 또 온전히 문학가도 아닌, 경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스스로의 병환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한 담론적 질서 속에서 환자가 되어버리는 작품 속 산부인과라고 하는 공간은 이러한 경계적인 공간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경계적인 공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물 형상이다. 작품 속에서는 루핑과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한 완전한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들은 자

연스레 루핑과의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작품 속 주제 의식을 더욱 독보이  
게 해준다.

따라서 본고는 상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품 〈병원에서〉를 분석하고,  
작품 속 공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계적인 측면에서의 알레고리를 포착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알레고리 속에 담긴 덩링이란 인물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의사 루핑

열정적인 문학소녀였던 덩링은 193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누구보  
다 걱정적인 혁명가로서 탈바꿈하게 된다. 그러나 덩링의 이러한 ‘전향’에  
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 바로 해방을 위한 이 사회의  
병폐를 ‘진단’하는 문학적 행위이다. 들뢰즈(Gilles Deleuze)는 문학 작가를  
병을 진단하고 창작해냄으로써 작품이라는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보았다.<sup>5)</sup>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 사회  
등 거시적인 범주까지 해당하는 것이다.

《3·8절 유감(三八節有感)》, 《우리에게 잡문이 필요하다(我們需要雜  
文)》 등 당시 연안 사회를 비판했던 글들이 쓰여졌던 1940년대 초기의  
덩링이 보여주었던 그 어느 때보다도 해방적이고 혁명적이었던 모습으로  
부터 판단하건대, 그 사회와 질서를 ‘진단’하고, 이를 ‘치료’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드러내 보였던 시  
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덩링의 ‘의사’로서의 면모가 가장 억압받  
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덩링이 ‘진단’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연안에

5) 로널드 보그, 김승숙 옮김, 《들뢰즈와 문학》, 동문선, 2006, 23-62쪽.

자리 잡고 있던 기성 담론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덩링의 처한 상황이 재미있게도 그 시기에 쓰여진 <병원에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은 ‘병원’과 그 속에서의 ‘의사’, ‘환자’ 등의 이미지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의사로서의 덩링을 살펴보기에 상당히 유효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상기한 문제점은 어떤 연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진단’이라는 행위만으로 누구나 현실 속에서 의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앞서 들뢰즈가 제시한 것은 문학적 기질이 지니는 의사적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기질이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근대 사회 속에서 그것이 실효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권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누군가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행위’를 추구하는 것이 의사적, 문학적 기질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권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루핑, 그리고 덩링은 상기한 내면적 기질을 현실화시켜 행위로 옮기는 것, 즉 현실 속 혁명을 하고자 했으나, 그 권위란, 결국 현실적으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 권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기성 담론이 바로 의사적, 문학적 기질이 진단하고자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덩링과 루핑의 험난한 여정이 기인하게 된다.

본래 루핑은 문학적 기질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의학 공부를 거부했다. 그러나 루핑은 들뢰즈에 주장에 의거해서 생각해본다면 문학적 기질을 지니고 있던 루핑은 애초부터 ‘의사’로서의 기질을 지니고 있던 것이다. 이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거부하지만, 그 누구보다 ‘의사’로서의 기질을 지니고 있는 루핑.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아버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해방으로의 탈주를 기도한 것일까? 그렇기에 ‘의사’를 혐오까지 했을까? 그것보다는 기질과 현실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어떤 아포리아에 빠진 것은 아닐까?

상기한 물음에 대해서 답해보자면 루핑의 첫 등장과 이후의 모습 사이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다. 작품 속 루핑의 첫 등장은 겉으로 보았을 때 어딘가 어설퍼 보이지만, 어떠한 ‘질서’에 철저히 교육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질서’에 부합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즐거운 표정을 지으며 작고 둥그란 까만 눈을 치켜뜨고는 황량한 주변을 유쾌한 듯이 불러보았다.

“저는 일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선생님을 성가시게 할 일이 틀림없이 많을 텐데, 잘 좀 부탁드려요! 이 과장님! 선생님은 원로 혁명가이고 어위원에서 오셨지요?”

그녀는 이제 이런 말투에 익숙해져서 어느 기관에 가든지 먼저 사무원들과 이런 식으로 친해지곤 했다. (강조-필자)<sup>6)</sup>

이는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본래 아버지로부터의 억압으로 상징되는 봉건적인 가부장적 제도는 기성 질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덩링과 루핑에게는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루핑이지만, 아버지에게 굴복하여 의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오히려 사회 질서로부터 철저히 교육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방’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게 만든다. 덩링이나 루핑이 원하는 ‘해방’이라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대상을 지닐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본래에 ‘해방’적 기질을 지니고 있으나, 그 기질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억압하는 무언가에 속해 있어야 하는, 무언가 모순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루핑이 보여주는 모습은 상술한 순응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조금씩 자신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다.

6) 덩링, 김미란 옮김, <병원에서>,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 창비, 2012, 46 쪽.

그녀는 몇몇 회의에 참석해서 전날 밤에 잠을 안 자고 만든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열정이 넘쳤지만 세상물정에는 너무나 어두웠다.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이 목도한 불합리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논쟁을 벌이고 열변을 토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모조리 이야기해버렸다.<sup>7)</sup>

위의 인용문 속 루핑의 모습은 병원의 질서를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모습이 압축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 질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그 질서에 속해있어서는 안된다. 진단은 곧 그 질서가 지니고 있는 병폐를 폭로하는 것이며, 이는 기성 질서와의 충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들, 그들도 그녀가 늘 자신들의 생활 관리와 의료 개선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들 그녀를 동정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상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는 걸 당연히 여겼다.<sup>8)</sup>

위의 인용문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이 장면 속에서 루핑이 그 질서와 ‘충돌’하는 것을 보여준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질서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루핑은 의사이다. 의사이기에 의료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것으로부터 ‘의사’로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이 비단 환자일 뿐만 아니라 병원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질서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루핑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린다. “이상한 사람”,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루핑이 온전히 그 사회 속에 속해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사회로부터 ‘비정상’으

7) 덩링, 위의 책, 60-61쪽.

8) 덩링, 앞의 책, 61쪽.

로 규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의사인 루핑이 ‘이상한 사람’, ‘비정상’, 즉 환자로 규정되어 버리는 현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를 거부하지만 누구보다 의사로서의 기질을 갖고 있던 루핑에 대한 질문은 어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것은 루핑이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그 질서로부터 한발 물러서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전혀 상반되게 오히려 자신이 그 질서로부터 환자로 ‘진단’되는 존재인 것이다. 루핑은 누군가를 진단하고 치료할 기질과 능력, 그리고 신분을 지녔지만, 그 진단과 치료의 대상이 될 질서에 걸쳐져 있는 존재이다. 그렇기에 온전히 ‘의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온전한 ‘의사’가 된다고 함은 자신이 탈주하고자 하는 그 질서로 완전하게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핑은 의사가 되었고, 병원으로 향했다. 루핑은 ‘진단’해야 했고, ‘치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루핑의 기질인 것이다. 루핑은 자신에게 ‘진단’과 ‘치료’에 대한 권위를 전해준 이 사회를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 경계적인 루핑의 모습이 루핑으로 하여금 아포리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술할 가능성을 탄생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의 표정을 살필 줄 모르는 것, 그렇기에 모조리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이상한” 것으로 규정된다는 것. 이것이 덩링이 그리고자 하는 루핑의 모습이며, 또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었던 덩링이기 때문에 그동안 ‘의사’로서의 정체성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링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의 가능성을 여과없이 드러내 보이고자 노력하였다. 여러 정체성이 혼재되어 있어, 오히려 편향되지 않은 모습을 지니게 된 루핑은 후술할 산부인과와 만나게 된다.

### Ⅲ. 경계적 공간으로서의 산부인과

일찍이 의학으로부터 담론 형성과 그 속에서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을 포착했었던 미셸 푸코는 자신의 저서 《임상의학의 탄생》<sup>9)</sup>에서 근대적 의학이 탄생함에 따라 병원 속 언표가 어찌 사회적 권력을 얻는지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푸코는 저서 첫 장인 〈공간화와 분류하기(Spaces and Classes)〉에서 개념화 과정을 하나의 공간화의 과정으로 보고, 그 공간이 규정되고, 구체화되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닌 채 분류가 되는, 세 단계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10)</sup> 이 세 단계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한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관점에 따라서 1차적으로 큰 집단으로부터 특정한 성격을 지닌 것을 분류해낸다. 둘째, 그것을 구체화 시킨다. 셋째, 그것을 사회적으로 권위를 지니고 있는 담론을 통해 의미를 부여한다.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을 분류해내고, 그것이 해당하는 대상을 구체화시키며, 이러한 분류를 사회적으로 공인시키는 것이다.

결국 근대적 병원이란 공간은 상기한 세 단계의 공간화로 인해 탄생한

9)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자신의 저서 《임상의학의 탄생》을 통해서 담론 이론이 근대 이후 어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담론의 주류인 의사가 자신의 언어적 발화의 권위를 통해 환자를 통제하고, 그 과정 속에서 권력을 얻게 되는 일련의 근대적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The Clinic》, Routledge, 2003, 이민구, 홍세연, 〈푸코의 질병의 공간화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의철학연구》 제20호, 2007 등을 참조.

10) 허경은 이러한 분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푸코는 이러한 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의학 담론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세 가지 공간화(spatialisation)를 구별한다. 일차적 공간화는 질병을 ‘질병의 근본 특성을 규정짓는 개념적 형상 안에’ 위치시키는 일이다. 이차적 공간화는 질병을 ‘질병이 발생하는 개별적 신체 안에’ 위치시키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삼차적 공간화는 질병을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시키는 일로서, 후에 내치(內治, police)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허경, 〈근대 임상의학 및 생명 담론의 변화〉, 《생명연구》 23집, 2012, 50쪽.

공간이며, 그 담론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근대적 병원의 탄생 자체가 상기한 권위를 담보한 공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연히 그 공간 속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의사는 정상으로부터 비정상을 분류하고, 그 대상을 상정하며, 그것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한다. 결국 병원에서 비정상으로 규정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비정상으로 공인되는 것이며, 치료를 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근대적 ‘병원’의 탄생은 어떠한 측면에서 ‘근대’, ‘여성’이라는 무기를 통한 권위의 형성이라는 수단을 바탕으로 환자를 수직적으로 철저하게 대상화하는 공간이 탄생했음을 의미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병원에서〉 속 산부인과라는 공간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산부인과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이다. 즉 산부인과에서는 오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행위를 통해 ‘질병’을 지닌 ‘환자’로 규정하는 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산부인이라고 하는 공간은 문학 작품 속에서 적지 않게 상기한 의미를 나타내는 공간으로 등장한다.<sup>11)</sup> 〈병원에서〉 속 산부인과의 여성들 역시 산부인과 의사인 루핑의 시선 속에서 ‘비정상’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곳에는 진정으로 각성한 사람도 적지 않아서 각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독립하여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여성이 상당했으나 태반은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사리에 어두웠다.<sup>12)</sup>

여기서 루핑은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사인 루핑은 동시에 여성이기 때문이다. 즉 산부인과라는 공간 속에서 자신이 걸쳐서 서 있는 담론의 질서에 의해 ‘정상’이 아님을 진단받게 되는 것이다. 상기한 인용문에서 여성을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같은 여성인 루핑이다. 결국 저 장면은 루핑이 놓여있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어쩌면 풍자적이라고 할 수

11) 이러한 문학 작품 속 ‘산부인과’이란 공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김소륜의 〈여성 소설에 나타난 ‘병원’ 공간 연구〉 정도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12) 덩링, 위의 책, 60쪽.

있을 정도의 것을 드러내 보인다. 그리고 〈병원에서〉 속 산부인과는 단순히 여성이 대상화되는 공간이 아닌, 루핑의 다원적인 신분이 드러나는 경계적인 공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부인과의 담론은 비단 산부인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부인과가 자리 잡고 있는 지역 모두에 걸쳐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병원의 담론이 지배를 받고 있는 공간이며, 이곳의 의사는 이 지역을 지배하는 담론에 의해서 누군가를 진단하고 질병을 판단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심지어 그 권위는 비록 선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거짓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에 있다.

“얼마나 걸리죠?”

“금방 끝납니다.”

누군가 그에게 답해주었다. 하지만 루핑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항상 사실대로 말해주진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sup>13)</sup>

루핑은 어디를 가든 이러한 권위를 지닌 사람들과 마주치며, 심지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조차 그러하다. 여성이 비정상적으로 규정되는 산부인과의 담론이, 자연스레 병원 전체의 담론이 지배하고 있는 유사성을 지닌 공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여기서 미묘한 상하관계가 형성된다. 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친구인 외과의사 정평(鄭鵬)의 수술실에 들어가 정평으로부터 ‘배우고’ 싶어 하는 루핑의 모습이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업무에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기술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경험을 쌓으려 했으므로, 운 좋게 일이 없을 때 정평이 수술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참관학습을 갔다. 전시에는 외과 기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부득이하게 그녀가 의료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면 외과의사로 일하는 것이 조산원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sup>14)</sup>

13) 덩링, 위의 책, 69쪽.

같은 의사로서 루핑과 정평은 지식 체계 내에서 동등한 입장에 놓여있다. 그러나 같은 문학적 기질과 의사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들은 배움을 주는 존재와 받는 존재로 나뉘게 된다. 그러나 정평은 루핑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이 순간 루핑은 의사로서의 권위는 사라지고, 루핑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평범한 조산원’과 같이 되어버린다. 즉 답론 질서의 하위계층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산부인과라고 하는 공간이 암시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선장에서 루핑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는 장면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루핑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병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나, 점차 그럴 수가 없게 된다. 그 질서 속에서 남아있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위계층으로서 그 질서에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사회 질서로부터 완전히 떠나거나, 아니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양자택일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아래는 상기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가 다 끝내기도 전에 루핑도 버티지 못하고 신음 소리를 냈다. ....(중략) 그리고 그녀 혼자서 문밖으로 기어나오며 리아(黎麗)가 있는 곳을 가려고 했다. 돌아온 간호사 두 명이 그녀를 조금 끌고 가다가 내려 놓았다.<sup>15)</sup>

위에 인용한 수술실은 비록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서 근대적 가치가 담긴 공간이지만, 루핑이 원하는, 온전하게 치료를 위한 상태를 갖추지 못한 곳이다. 즉 앞서 루핑이 개혁하고자 하는 것들이 잔존하고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러한 공간에서 루핑은 버텨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내쫓기게 된다. 이는 더 이상 루핑이 의사라고 하는 권위를 온전하게 지니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자신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병폐적인 권위적

14) 덩링, 위의 책, 65쪽.

15) 덩링, 앞의 책, 71쪽.

질서에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루핑은 매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고 만다.

다음 날 리야가 그녀를 보러 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누워있었다. 그녀는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다고, 그냥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다고 리야에게 말했다.<sup>16)</sup>

루핑은 분명 지식 담론 체계 내에서의 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지적 엘리트이다. 그러나 옌안, 더 나아가 현대 중국 속에서 루핑은 그 지식 담론 체계에 의해서 상위계층을 넘겨주어야만 했다. 이는 분명 억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작품 속 이러한 담론의 확장을 어떻게 설명해볼 수 있을까? 사실 작품 속 나타나는 담론적 질서는 ‘산부인과’ 내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산부인과 밖의 공간, 외부의 공간으로부터 형성되어 산부인과 내부로 유입되어 들어온 것이다. 작품 속에서는 전반적으로 산부인과로부터 그 외부공간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반대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된다. 실제로 루핑은 처음부터 이곳의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인물이 아닌, 옌안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파견을 나온 인물이다. 애초에 루핑이라는 인물 자체가 외부로부터 온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는 내부의 담론 질서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간다고 하는, 푸코의 외부 공간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듯하다. 기본적으로 담론적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은 기성 담론이 새로운 담론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푸코는 이러한 변화는 결국 내부적인 것이 아닌, 외부의 공간으로부터 건너온 이질적인 것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sup>17)</sup>

16) 덩링, 위의 책, 73쪽.

17) 푸코에 의하면, 어떠한 진실은 외부로부터 부여받은 것과 내부에 존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해볼 수 있으나, 그것의 형성, 또는 주체의 형성에 있어서는 결국 내부적인 것, 본래의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등과 같은 외부의 공간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자세한 것은 안현수,

결국 담론의 질서 형성이라고 함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새로운 질서 체계의 핵심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루핑의 첫 등장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어떤 질서로부터 교육을 받은 듯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루핑이 산부인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은연중에 외부로부터 내부로 새로운 질서가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산부인과와 그곳을 둘러싼 지역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당의 필요”로 인하여 유입된 사람들이다. 이는 곧 그곳의 구성원들이 모두 루핑과 같은 시작을 겪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작품 속 산부인과 내부로부터 산부인과 외부로 점차 확장되어가는 시선의 변화는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질서의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역추적하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부인과라고 하는 현대 의학의 산물은 당시 중국 사회를 지배하던 근대성의 한 요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며, 루핑은 자신을 둘러싼 거대 담론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정받는 의사이자 혁명가, 그리고 문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이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루핑은 역설적으로 스스로가 ‘비정상’으로 진단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적 공간은 산부인과 밖의 의료체계, 혁명 체제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외부로부터 기인한 것이었다.

루핑은 외과적인 것에 더욱 눈길을 주었고, 산부인과에서의 일보다 그것이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산부인과는 덩링과 루핑이 처한 ‘현실’이고, 산부인과 밖의 외부 세계는 ‘현실’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공간이다. 그로 인하여 루핑은 형성된 현실의 질서 속에서 외과적인 것에 종속되어버리는, 산부인과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고, 결국 굴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공간적 차이와 그 사이의 역학 관계는 루핑과 덩링의 인간 개체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산부인과는 이를 상징적으로

《미셸 푸코의 주체화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8을 참조.

잘 드러내보이는 공간이다. 작품은 사회적 폭로가 ‘산부인과’라고 하는 공간으로부터 발화됨과 그것이 외부적 공간의 담론에 의해 어떻게 ‘훈육’되는지를 산부인과라고 하는 의료 체계가 지니는 상징성으로 보여줌으로써 전체 사회 질서가 어찌 형성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찌 유지되는지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축약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부인과라고 하는 공간은 루핑, 덩링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위에 세워진 공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적 공간은 루핑, 그리고 작가 덩링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의 힘을 발휘시켜주는 역할을 나타내기도 한다.

#### IV. 치료 ‘함’에서 치료 ‘받음’으로

여기서 우리는 산부인과라고 하는 공간 속 루핑이 보여주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저항’의 힘은 온전히 하나의 커다란 테두리 내에서 순응하고 살아가는 존재로부터 발현되기엔 어려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서로 다름이 맞닿아 있는 경계선 위에서 그 다름들이 만들어내는 장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즉 저항의 힘은 자연히 경계선 위해서 탄생하고 그 힘을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루핑이라는 인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부인과라는 경계선 위에서 있는 경계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함’으로 묘사되는 루핑의 저항의 힘이 루핑이라는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을 통해 묘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계’가 지니는 또 다른 성격은 불확정성이다. 이는 특정한 방향성으로 편향되지 않음을 뜻한다. 이는 곧 고유한 차이성을 지닌 개체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결국 경계적 존재는 자신의 개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속 루핑이라는

인물과 루핑이 보여준 ‘치료함’으로 묘사되는 저항의 힘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 루핑은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치료 ‘하고자’하는 인물이지만, 작품의 결말에서는 오히려 치료를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역설적인 묘사는 앞서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진정으로 그 인물이 치료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루핑이 치료 ‘받는 것’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을 고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이는 루핑이 경계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덩링, 더 나아가 당시 중국이 처해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루핑의 처지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산부인과로부터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을 시점과 맞물린다. 루핑과 친구가 된 리야, 정평과의 만남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산부인과 내부의 일이 병원 전체의 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서로 병원 내부에 흘러 다니는 풍문을 이야기하며, 병원 전체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은 또한 병원 안의 시시콜콜한 뉴스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원사가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는가, 원장인지, 외과 주임인지, 아니면 제삼의 인물인지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병원 안에 떠도는 잡다하고 악의적인 소문들을 싫어했다.<sup>18)</sup>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들 셋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결국 자신들이 싫어하는 행위 그 자체라는 점이다. 사람들이 뒤에서 풍문을 전하고 다니는 행위를 꺼려했던 루핑이지만, 리야와 정평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루핑은 자연스럽게 자신 역시 자신이 비판하는, 치료 ‘받아야’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루핑은 내재적 규범성

18) 덩링, 위의 책, 63쪽.

이 붕괴된다. 조르주 칸길렘(Georges Canguilhem)은 질병, 병리적 상태라고 함은 곧 양적인 변화가 아닌 질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환자 주체가 병리적 상태를 인식하는 것이며, 이것은 곧 내재적인 규범성이 깨진 것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즉 내재적 규범성이 붕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이 병리적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질병을 지닌 병리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보여준 루핑의 모습은 자신의 내재적 규범성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었다. 이후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치료를 받는 존재, 즉 환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때부터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병원을 개혁, 치료 ‘하고자’ 분주하게 병원 전체를 돌아다니지만 외부의 권위에 변변히 가로막히는 모습의 루핑만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외부와의 접촉, 내부와 이질적인 공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점차 루핑은 의사로서의 권위에서 내려오고, 치료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루핑으로 하여금 치료 ‘받게’ 되는 존재로 변모하게 만드는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역시 외부의 거대 담론에 있다. 루핑이 치료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루핑이 보여준 모습들은 루핑 자신이 치료하고자 했던 그 병리적 상태와 같다. 이는 경계적 상태가 지니는 불안정성이 지니는 또 다른 측면, 즉 가능성과 한계가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경계적 상태는 그 자체가 불안정하기에 역동성을 지니고 있다. 이 역동성은 변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한쪽으로 쉽게 치우칠 가능성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경계선 위에 서있는 상태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있지 않은 상황이기때 각각을 거리를 두고 ‘진단’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부터 루핑이 치료‘하고자’ 하는 모습이 발휘된다. 즉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을 때 진정한 ‘치료’의 가능성이 담보된다는 말이 된다. 앞선 장의 말미에 제시

19) 한희진, <조르주 칸길렘의 의철학에서 ‘정상성(normalité)’ 개념>, 《의철학연구》 15권, 2012, 120-140쪽, 황수영, <칸길렘의 생명철학에서 개체성과 내재적 규범의 문제>, 《의철학연구》 15권, 2013, 12-24쪽 참조.

한 바와 같이 경계인으로서의 하나의 가능성, 치료 ‘하는’ 역량이 발휘되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저항’의 힘이다. 여기서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원 내를 둘러싸고 있는 질서의 권위이다. 앞서 수술실에서 나온 이후 묘사되는 루핑의 무기력함도 결국 이러한 저항의 대상에 굴복했기 때문에 발생한 뿔랑폴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본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환자와의 대화로 인해서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책략이 없어요. 당신은 너무 어려워요. ....(중략) 누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가서 취사병에게 물어보시오. 누가 내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겠소? 누가 당신에 대해 나에게 말해주었냐구요?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마땅히 그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겁니다.”<sup>20)</sup>

루핑과 같이 문학적 기질이 있는 그 환자는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아는 것을 루핑만이 모르고 있다고 한다. 즉 이 질서에 속해있는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다. 온전하게 속해있지 못한 루핑만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똑같이 문학적 기질을 지니고 있지만, 똑같이 혁명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있지만 그와 루핑은 그것이 다르다. 환자는 분명 의사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루핑은 그 환자에게 감화되어 배우고, 치료된다. 처음 ‘의사’로 등장했던 루핑은 어느새 환자가 되어 있었고, 결국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즉 경계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온전히 이념적 질서에 속하게 되는 존재로 변모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루핑은 이중적으로 질병을 진단받게 된다. 근대 이성을 기반으로하는 과학적인 양적 판단과 그에 따른 사회적 규범에 의한 진단, 그리고 내재적 규범성의 붕괴로 인한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그것이다. 외부

20) 덩링, 위의 책, 76쪽.

적인 규범의 강세와 내재적 규범의 붕괴로부터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진정한 ‘당의 필요’에 부합하는 루핑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루핑은 산부인과라고 하는 경계적 공간 역시 떠나게 된다.

## V. 나오며

〈병원에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경계인으로서의 루핑, 경계적 공간으로서 등장하는 산부인과, 이러한 것들이 결합 되어 더욱 그 함의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그 정당성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작품 〈병원에서〉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시 중국 사회가 단순히 치료하거나 치료받는, 단일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못했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항전기라고 하는 당시 중국 사회는 사회적 혼란기였으나, 역설적으로 기성 담론을 해체, 파괴하여 전복시킬 기회를 얻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경계적인 상황은 이러한 전복의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결국 루핑의 작품 초반부에 보여준 경계인으로서의 모습은 거대한 질서와 혁명성 사이에서 개혁의 대상에 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앞서 분석한 문학자, 의사, 혁명가라고 하는 각각의 신분이 지니는 의미, 이것이 집약된 루핑이라는 인물과 융합하여 다양한 방향성을 지니게 되며 해체적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라고 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선’의 의미가 아닌, ‘해체’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해체’는 ‘경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게 된다. 작품 속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루핑은 결국 전복, 해체에 실패하고 거대한 질서에 편입해 들어간다. 허구이메이는 이를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이는 특수한 사고이다. 루핑은 이러한 사고 속에서 그녀와 환경 사이의 ‘변화/변화되는’, ‘억압/반항’의 관계를 해소한다. 이러한 사고는 문예좌담회 이후의 덩링 본인에게도 나타난다. ……(중략)아마도 덩링은 자신을 위해 일말의 가능성을 남길 공간을 희망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새로운 제도에 편입된다면, 그 공간은 이미 사라져버린다.<sup>21)</sup>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루핑의 변화를 ‘성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패배’한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러한 ‘결말’은 당시 중국의 어려움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덩링이 무엇을 그리고 싶어했는지는 확답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덩링은 분명 ‘경계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그리려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투쟁 철학의 실천으로서 덩링은 먼저 ‘잡문(雜文)’을 제창했다. 루쉰(魯迅)이 고취시킨 ‘비수와 투쟁’의 잡문, 이는 이 시기의 덩링이 현실을 비판하는 데 있어 가장 훌륭한 ‘무기’를 제공했다.<sup>22)</sup>

이 당시 덩링에게 필요했던 것은 실천적 투쟁의 ‘무기’였고, 이것을 필요로 한 덩링은 경계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지녔던 덩링이었다. 덩링이 배치한 경계적인 인물, 공간, 사건 등 모두가 그 가능성을 향해있었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결말’보다는 작품 전반이 지니고 있는 알레고리와 그것을 나타내주는 여러 문학적 장치에 집중을 한다면 저항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남기고 있는 작품인 것이다.

21) 这是一种特殊的思路，陆萍正是在这种思路中取消了她和环境之间的“改变 / 被改变”、“压迫 / 反抗”的关系。这样的思路同样体现在文艺座谈会后的丁玲身上。或许丁玲曾经希望为自己留下一些可能的空间 但事实上是一旦被纳入新制度，这种空间就已经被取消。贺桂梅，위의 논문，127쪽.

22) 作为对斗争哲学的实践 丁玲首先开始倡导“杂文”。鲁迅所宏扬的作为“匕首和投枪”的杂文 为此时的丁玲批判现实提供了最好的“武器”。贺桂梅，위의 논문，115쪽.

< 참고문헌 >

- 딩링, 김미란 옮김, 《내가 안개마을에 있을 때》, 광주: 창비, 2012.
- 로널드 보그, 김승숙 옮김, 《들뢰즈와 문학》, 서울: 동문선, 2006.
- 안현수, 《미셸 푸코의 주체화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8.
- 어빙 고프먼, 심보선 옮김, 《수용소》,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8.
- 조르주 캅길렘, 여인석 옮김,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서울: 그린비, 2018.
- 강에스더, 〈항전기 디링 소설의 낭만주의적 특징 연구〉, 《중국어문논총》 제69집, 2015.
- 김미정, 〈정령(丁玲)문학의 진폭(1) -정령(丁玲)의 좌익으로의 전향을 전후하여-〉, 《중국어문학》 제51집, 2008.
- \_\_\_\_\_, 〈정령(丁玲)문학의 진폭(2) -좌익문예에서 공농병문예로-〉, 《중국어문학》 제52집, 2008.
- 김소륜, 〈여성 소설에 나타난 ‘병원’ 공간 연구〉, 《한국문화연구》 제18집, 2010.
- 봉인영, 〈환영(幻影)과의 전쟁〉, 《중국현대문학》 제74호, 2015.
- 이민구, 홍세연, 〈푸코의 질병의 공간화와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의철학 연구》 제20호, 2007.
- 한희진, 〈조르주 캅길렘의 의철학에서 ‘정상성(normalité)’ 개념〉, 《의철학 연구》 15권, 2012.
- 허경, 〈근대 임상의학 및 생명 담론의 변화〉, 《생명연구》 23집, 2012.
- 허레이메이, 성근제, 〈지식인·여성·혁명 - 덩링(丁玲)의 사례를 통해 본 연안의 대안적 실천과 신분정치〉, 《황해문화》 제40호, 2003.
- 황수영, 〈캅길렘의 생명철학에서 개체성과 내재적 규범의 문제〉, 《의철학 연구》 15권, 2013.
- 贺桂梅, 〈知识分子、女性与革命 — 从丁玲个案看延安另类实践中的身份政

- 治), 《当代作家评论》 第3期, 2004.
- 李玲, 〈异己的环境中, 主体何为——再论丁玲小说《在医院中》、《杜晚香》〉, 《文艺研究》 第7期, 2013.
- 李杨, 〈“右”与“左”的辩证: 再谈打开“延安文艺”的正确方式〉,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第8期, 2017.
- 潘磊, 〈陆萍·丁玲·延安青年——丁玲《在医院中》新论〉, 《甘肃社会科学》 第1期, 2005.
- 石恢, 〈“文学治疗”、“文学住院”及“闯入者”等——读几篇文章有感〉, 《松辽学刊》 第3期, 1999.
- 唐小兵 编, 《再解读 - 大众文艺与意识形态》,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7.
- 张祖立, 〈丁玲“向左转”过程中的一次主体“困惑”〉, 《东北师大学报》 第3期, 2007.
- 钟希明, 〈认同焦虑与疾病的空间隐喻——以丁玲《在医院中》为例〉, 《东南学术》 第4期, 2007.
- Michel Foucault, 《The Birth of The Clinic》, London: Routledge, 2003.

### <Abstract>

The ideological ‘conversion’ of modern Chinese intellectuals in the 1930s has a very important significance. Ding Ling was at the center of change among the Chinese intellectuals at the time. One of the keywords that must be mentioned to explain Ding Ling is ‘conversion’. As such, Ding Ling’s ideological, literary, and identity conversion is a very important part of understanding Ding Ling’s literary world. What is to be noted here is the rediscovery of Ding Ling as a boundary person created by her multi-layered identity.

Ding Ling's *In the Hospital* is a work that reveals Ding Ling's thought and psychological state during this period.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e situation in which Lu Ping is placed, the main character in this work, was not only Ding Ling faced, but also the modern Chinese intellectuals at the time. Therefore, the analysis of this is also very important.

In order to examine the above,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narrative allegory and various meanings of the work from the symbolic meaning of the image of “disease”, the space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s a borderline space, and the status of doctors in it to reveal identity as a marginal person.

Key Words : 덩링(Ding Ling), <병원에서>(In the Hospital), 전향(Conversion), 경계(Boundary), 치료(Treating), 근대적 병원(Modern Hospital), 산부인과(Obstetrics and Gynecology)